

# 북 디자인은 장식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안지미 | 디자이너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독자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판형과 제본, 재료의 선택 등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책 한권 한권마다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갈 때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서점을 찾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듯하다. 물론 책상 모니터 앞에 앉아 몇 번 ‘클릭’만 하면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세상에 굳이 서점에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서핑 대신 서점에 구경 나가는 것을 즐겨하는 듯하다. 글썄, 그 이유는 손으로 직접 책을 만져보고 종이 냄새 맡아보고 한장 두장 책장도 넘겨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텍스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  
근사하게 잘 만들어진 외국서적들 감상도 하고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도 만나다 보면 시간은 쏠살같이 흘러간다. 하지만 막상 서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유쾌하

지만은 않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보고 싶노라면 마치 덕지덕지 화장하고 화려하게만 차려입고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있는, 한마디로 유행일색, 몰개성화된 성형미인들을 만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지극히 인위적이어서 사람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물론 최근 들어 안과 밖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격을 갖춘 책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즐거운 일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출판물에서 다양성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천편일률적인 판형과 지나치게 화려한 표지, 우선 눈에 띄고 보자는 유행 따르기에 급급한 책이 지배적인 것이 우리 현실처럼 느껴진다. 디자인 과정에서 흔히 ‘눈에 잘 띄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책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글자가 크고 화려한 색을 입힌다고 책이 잘 팔려나갈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아닐까?

디자인을 하다보면 가끔씩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판형과 제본형식, 심지어 재질까지 모두 정해놓은 후 디자인을 의뢰했을 때가 그렇다. 디자인이 단순히 장식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독자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 판형과 제본, 재료의 선택 등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책 한권 한권마다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갈 때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텍스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된다.

책을 만들 때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특히 유통이나 제작비 문제 등으로 디자이너가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 재질에

관한 고민이다.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는 《짧은 글 긴 침묵》(김화영, 현대문학북스)에서 “사람들은 촉각·미각·후각과 같은 직접적 접촉의 감각들을 터무니없이 도외시함으로써 삶을 너무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쓰고 있다. 책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직접 접촉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성적 디자인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책의 질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물론 디자인에서 상업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디자이너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책은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소중한 문화기 때문이다.

책에도 각기 타고나는 운명이 있다고 한다. 천명의 독자를 만날 운명의 책, 또 훨씬 많은 독자와 만나 베스트셀러가 될 운명의 책도 있을 것이다. 정성과 책임을 다해 만들어진 책은 어느 하나 가치 없는 것은 없고 독자가 외면할 리 없다는 믿음이 내겐 있다. 물론 좀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책의 운명을 예측할 뿐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가 “오래된 옛날 책의 페이지에 찍힌 갈색의 얼룩들은 아마도 독자들이 그 책을 크게 소리내어 읽다가 튀긴 침의 흔적일 것이다. 문어의 책 위에 찍힌 구어의 흔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디자이너는 바로 그 ‘문어의 책’ 위에 더 많은 ‘구어의 흔적’이 남겨지도록 책과 독자의 행복한 만남을 주선하는 이들이 아닐까. ■

안지미씨는 ISCOM Paris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정병규디자인과 월간 《GEO》, 서울판사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